

모든 일체를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아야

B13면에서 계속

없이 한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고개 뺨뺨이 안 하고 눈 돌리지 않고 항상 자비하고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에 있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뭘 수 있으면 자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코 자기가 알아야 될 문제, 그것을 아셔서 풀린다면 얼마나 이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인 스님이 "보 쪽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붓장에 뭘 어떡해? 이 세상에 팔만대장경이 있다 할지라도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만 한다면 만법을 들고 낸다 하더라도 조금도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책이 그 다섯 마디 안에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조성해서 남들이 모두 단 한 줄거리라도 알게끔 해!" 그랬죠.

우리가 밤이면 자죠? 낮이면 깨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연 외선이고 앉으면 좌선이고, 일을 하고 책을 보면 바로 행선이니라. 이 모두가 선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너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보라." 하셨습니까. 그냥 놓지 못해서, 죽을 때 이 몸을 바로 벗지 못하고 몇 해씩이나 고생을 하고 풍을 싸고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설 거사 얘기 들으셨죠? "그저 난 가야겠다." 그러면서 앉았다가 그냥 가셨죠. 그러니까 이 곱데 가는, 이 모습은 집이에요. 자기 시작해서 집이라고요. 그래서 훌쩍 벗어 놓고 '너 그동안 잘 살아. 잘 있어. 예전에 내가 너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은 시자로 쓸 양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너는 다시 지주화풍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선 딱 나왔단 말입니다. 또 팔은 팔대로 가죠. 밭에서 일을 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먼저 가셨다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급하니깐 그냥 팽이 든 채로 갔단 말입니다. 부인은 길을 매다가 그냥 호미 자루 든 채로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벗을 수가 있어야만 우리가 불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뜻으로서의 불제자 말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그리고 막대한 미래 등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숨 쉬는 것도 버겁고 힘이 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정신 차릴 수 있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 생각에 모든 중용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관습



그림 · 최주현

착이 있으면 욕심이 붙고 욕심이 붙으면

일 저지르게 되니 너무 과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괜히 창살 없는 창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예처럼 이끌려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쓰러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쓰러지고, 중심을 세우지 못하니까. 예를 든다면 멧돼지 심봉이 꿩어지지 않았으니 멧돼지가 이따말 수밖에요. 돌건을 넣어도 갈려져 나오지 않고 정성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우리 몸통이 속에 수많은 인과를 얻어서 인연에 따라서, 인연의 소치로, 자기의 각 본대로, 연애인들이 각본대로 연기를 하듯이 그 저 속에 든 대로, 자기가 한 대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탓입니까.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자기 탓입니다. 남이 나를 못 살게 할 때가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 탓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 오히려 그 사람을 수고로 시켰으니깐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자체로써 나를 다지기 위한 내 주인공 참 부처님 자성신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등글게 쳐 주시는, 그런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사람을 수고로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앞에 닥쳐오는 그 모두를, 내가 죽어 가고 아프고, 병신이 돼 가고 가난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하고, 당신은 공했으니깐 그저 죽어야 사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왜 죽어야 하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가끔 했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너는 죽어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봤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너로 하여 나를 보는 거지 네가 없다면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없다면, 네 자체의 주장자가 없다면, 나를 똑똑히 볼 수가 없고,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 네 주장자가 따로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길잡이는, 진짜 길잡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한테 고(苦)라는, 업보라는 그 누명을 벗겨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끈이든고 지푸 흔들리고 속고 이리저리 마시고,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갈 것이고 어떠한 자갈밭이라도, 어떠한 가시밭이라도, 어떠한 낭떠러지라도 서슴없이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

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나로 인해서 모든 걸 알았기 때문이죠. 내 몸속에 있는 인연에 따라서 모두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의 조건이든 선의 조건이든, 인연에 따라서 내 앞에 온 것이니까 나는 바로 배의 선장이다. 그럼 내 한생각에 이 모든 마음들은 따를 것이다. 그러면 한마디만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고정된 관념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의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니, 이것은 그 선장 하나마저도 없는 마음, 거기에서 모든 게 가지각색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지금 고정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걸어들 때 뒷발자취가 없듯이, 저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서 팽개치고 여기 와서 앉았듯이, 우리는 금방 사랑하다가도 사랑을 팽개치고 일 보러 가듯이, 일을 하다 금방 팽개치고 또 사랑하듯이,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그렇게 순간순간 만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옮겨 놓고 저렇게 옮겨 놓고,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간다 온다도 없이 이렇게 여여하게 그냥 흐르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 산다, 생사에도 떠달리지 마세요.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천도 좀 시켜 주시오." 하니까 "허, 본래 살아온 게 있다면 죽을 것도 없거니와." 하고선 그냥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천도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무색 하겠습니까만 그것은 그 즉시에 요리가 된 것이고 그 즉시에 천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물질 분위만 알지 보이지 않는 50%의 그 영향력은 모르고 사시기 때문에 자유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여라도, 누가 이리로 가면 나쁘니 이사를 가지 마라, 부적을 가져라, 또 무슨 고사를 지내라, 뭐 크게 차려 놓고 제사 지내라 이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데 속는다면 여러분은 한시도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것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이사가 가는 날도 내가 이날 갔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요. 내가 집을 짓고 싶다면 때에 가서 지으면 그냥 부처님의 법이니 내가 어디 걸렀다 안 걸렀다 이런 것을 논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고귀한 보배 속에서 바로 자기 마음이 나오는데 찰나찰나 생각 나오면 그 자체가 바로 법음이 아닐까요?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던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순모 손뜨개 모자, 목도리

한울한울 직접손으로 뜨게질한 어머니정성이 고이깃든 고급 순모 손뜨개모자, 목도리세트들 저렴한 가격에 판매코저 합니다.

겨울 나는 스님 선물용으로도 좋고 목도리는 일반 어느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 소재: wool 100%
- 색상: 회색
- 길이: 170cm x 넓이 15cm

- 손뜨개모자 목도리 1set 구입시 58,000원
- 2set 구입시 106,000원
- 목도리만 구입시 38,000원

도매구입 문의

■ 제조 판매원 : 한새울 승복점
TEL (051)644-6624
H·P 010-4579-6636
http://www.hansaeol.com

입금 계좌

기업은행 096-045672-02-016
새마을금고 1315-09-003257-4 (예금주 : 배재훈)

제1기 수행 교실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3개월)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최고의 강사들에 의해 격조 높은 강의가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

- 근본불교의 수행체계와 방법 - 붓다락카타 스님(보리수 선원장)
-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법 - 원철 스님(조계종 기획국장)
- 대승불교의 수행체계와 공관법 -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

■ 교육일시 : 2007년 1월 16일 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유마선원 수행교육원 ☎ 02)737-8227

■ 위 치 : 종로구청영 두산위브 217호 (지하철 중각역, 안국역 하차)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문서현 선사님역사 / 지가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유수,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부편의 역사와 전리를 경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한문서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한문서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접근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명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달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개원하시는 스님, 인등을 교체 하시려는 스님 이제 인등 전면에 설치하십시오!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오행 관음인등 출시

인등을 밝히는 의미는 성불의 시작이며 탐,진,치 삼독심으로 얽힌 무명을 소멸하고 재앙을 물리쳐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자님 다니시는 사찰에 매년 해해에 꼭 인등을 밝혀 업장소멸하고 만사행통 누리소서...

오행 관음인등의 장점

- 인등실제크기 : 가로 7.5cm 세로 13cm 입니다.
- 사용장소 : 각사찰 및 철학원,그외 인등을 밝히는 모든곳
- 복잡하던 전선이 없고 열의 발생이 없으며 LED전구를 사용하여 수명이 반 영구적이고 전력소모량이 적고 아답터 1개로 130개의 등을 켤 수 있습니다.
- 고정식 인등이 아니고 탈,부착이 자유로운 벽, 천, 직,황,백,청색의 빛은 부족한 오행을 보강해 주며, 점등시 주,야에 디자인이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 본 제품은 실용실안 출원 제20-2006-0028648호 입니다.

오행 관음역사

오행관음은 불자님 가정에 액운을 막고 불심을 증장하여 무량보덕, 만사행통을 기원합니다. 각 가정에 소장하시고 일심발원하여 성불하십시오.

제작 및 판매 불교도경 직통 010-8337-7759

